

단국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가이드답안
(오후)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문학』 교과 ‘(1) 문학의 본질’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및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남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본질과 구조’ 부분에서 ‘문학의 유기적 구조’의 사례로 제시한 「나와 남」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장님이 아닌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에 차이를 보이는 장님이 등장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방법’ 부분에서 ‘감상적 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람의 아들』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공정 무역 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방법’ 부분에서 ‘비판적 읽기’의 사례로 제시한 「윤리적 소비는 효율적인가」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이송원 외(2019),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신사고, 44~46쪽.
- [나] : 이문열(2020), 『사람의 아들』, 알에이치코리아, 264~266쪽.
- 고희진 외(2019), 『고등학교 독서』, 동아출판, 84~93쪽 관련.
- [다] : 고희진 외(2019), 『고등학교 독서』, 동아출판, 76~77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 제시된 지문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는 문항이다.
 -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해’이다.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이해’를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5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주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남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설명한 글이다. 인간의 성향은 모두 양면적이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서로 상반되게 해석한다. 나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 되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 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남을 보니 서로 손가락질하고 홍보는 시끄러운 세상이 된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행한 일이 부당해 보이더라도 내가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남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고 나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남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 채점 기준

-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요약하는 문항이다.
- [나]에 등장하는 장님은 장님이 아닌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님은 장님이 아닌 사람이 감각 기관을 통한 일시적이고 자의적인 느낌으로 사물의 겉모습을 이해한다고 본다. 예컨대 감각 기관의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 해가 어둡하다고 말하면서 해를 분명한 실체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장님은 감각 기관에서 자유로워 순수한 추상으로 해를 이해한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공정 무역 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글이다. 공정 무역 인증의 원래 목적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원래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 무역 제품을 소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에 수익이 돌아가지는 않고, 공정 무역 제품의 소비자가 추가로 지급한 돈 가운데 실제로 노동자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는 중개인이 가지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그 적은 몫마저 임금으로 바뀐다는 보장이 없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해이다. 인간의 성향은 양면적이어서 상반되게 이해한다. 나의 기준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제각각의 입장에서 남을 보니 서로 홍보는 시끄러운 세상이 된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행한 일이 부당해 보이더라도 남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이해한다면, 나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남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2번) 예시 답안

[나]에 등장하는 장님은 장님이 아닌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님은 장님이 아닌 사람이 감각 기관을 통한 일시적이고 자의적인 느낌으로 사물의 겉모습을 이해한다고 본다. 예컨대 감각 기관의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 해가 어떠하다고 말하면서 해를 분명한 실체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장님은 감각 기관에서 자유로워 순수한 추상으로 해를 이해한다.

[다]는 공정 무역 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다.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 원래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가난한 나라에 수익이 돌아가지는 않고, 실제로 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공정 무역 인증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그 실효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 ‘(6) 국제 관계와 한반도’ 영역의 성취기준 [12정법 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 ‘(6) 국제 관계와 한반도’ 영역의 성취기준 [12정법 06-01] “오늘날의 국제 관계 변화(세계화 등)를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탐구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4) 인권 보장과 헌법’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 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 ‘(4) 사회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04-06] “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원칙 및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8) 세계화와 평화’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 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 서범석 외(2019), 『고등학교 정치와 법』, 지학사, 187쪽.
- [나] : 이경호 외(2019), 『고등학교 정치와 법』, 미래엔, 180쪽.
- [다] : 정철환, 「獨 난민 지원에 이탈리아 ‘경약’…… 쪼개진 유럽 빅 4」, 『조선일보』, 2023. 9. 27.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20~121쪽 관련.
- [라] : 정창우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213~214쪽.
- [마]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244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0점)

- [가]는 국제 문제를 정의한다. 국제 문제는 개별 국가나 지역을 넘어 여러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한 국가가 해결하기 곤란하며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제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나]는 국가들이 국제 문제에 대하여 협력하는 사례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참여하여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개발 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 [다]는 국가들이 국제 문제에 대하여 갈등하는 사례이다. 불법 이민자 문제는 대표적인 인권 문제이지만 국가들이 전폭적으로 불법 이민자 보호에 나서지는 않는다. 국제 인권 문제가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제 문제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채점 기준

- [가]의 관점을 활용하여 [나]와 [다]의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과 갈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 나타난 국제 문제 ‘협력’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
 - [가]에 나타난 국제 문제 ‘갈등’의 관점에서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

○ 문항 해설 2 (20점)

- [라]는 해외 원조에 관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를 소개한다.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모두 해외 원조에 관한 윤리적,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해외 원조의 목적에 관해서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한다. 국제주의자인 롤스에 의하면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해외 원조의 의무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있다. 롤스에 의하면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없는 해외 원조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시민주의자인 싱어에 의하면 커다란 희생 없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무조건 돕는 것이 의무이다. 싱어는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경제적 원조 등과 관련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국제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 [마]는 국제연합(UN)과 국제 사회의 강대국들이 리비아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한 예에 관한 것이다. 국제 사회가 개별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권 침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지만 무력의 사용이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 채점 기준

- [라]의 두 관점에서 [마]를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라]의 국제주의(롤스)의 관점에서 원조의 당위성을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라]의 세계 시민주의(싱어)의 관점에서 원조의 당위성을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에 의하면 국제 문제는 개별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국가들은 그 해결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갈등한다. [나]는 국가들이 국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다]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국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가들은 자국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협력하지 않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라]는 해외 원조에 관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를 소개한다. 롤스와 싱어는 모두 해외 원조에 관한 윤리적,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두 견해는 주로 해외 원조에 관한 것이지만 국제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사회의 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견해에 의하면 리비아의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마]의 무력 개입은 국제 문제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 싱어는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어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연합 등 국제 사회가 무력을 사용하여 리비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저지한 [마]의 행위는 정당하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5) 현대의 사회 변동’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5-0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3) 생활 공간과 사회’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를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3) 생활 공간과 사회’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2) 개인과 사회 구조’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4) 과학과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 ‘(3) 정치과정과 참여’ 영역의 성취기준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고력을 평가한다.

□ 자료 출처

- [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 『2022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 정탁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28쪽 관련.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85쪽 관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 『2022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 정탁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28쪽 관련.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85쪽 관련.
- [나] : 한세희, 「소셜 네트워크가 확인해 준 ‘느슨한 관계’의 힘 [한세희 테크&라이프]」, 『이코노미스트』, 2022. 10. 1.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76쪽 관련.

- 신형민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57쪽 관련.
- 정탁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28쪽.
- 용인특례시 Facebook 게시글, 「협치 제안 받습니다」, 2023. 2. 24.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86쪽 관련.
- 이경호 외(2019), 『고등학교 정치와 법』, 미래엔, 85쪽 관련.
- 전하나, 「美대선, 소셜미디어가 정치 참여 높여」, 『지디넷코리아』, 2012. 11. 4.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86쪽 관련.
- 이경호 외(2019), 『고등학교 정치와 법』, 미래엔, 85쪽 관련.
- [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구정화 외(2020),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88쪽 관련.
- 신형민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176쪽 관련.
- 정순구, 「[토요워치]“남과 비교하는데 지쳤어요” …… SNS 로그아웃」, 『세계일보』, 2018. 8. 17.
- 차우규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132쪽 관련.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85쪽 관련.
- 한국리서치(2018), 『[기획] 한국인의 외로움 인식 보고서 : 한국에도 외로움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이 필요할까?』, <https://hrcopinion.co.kr>.
- 차우규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132쪽 관련.
- 신형민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176쪽 관련.
- 이보라, 「“성인 10명 중 6명, 가짜 뉴스 접했다.” …… 가짜 뉴스 출처는?」, 『경향신문』, 2018. 11. 23.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130쪽 관련.
- 정한울, 「[여론 속의 여론] 네 명 중 한 명은 소리 없는 비명 …… ‘외로움’ 누가 관리 안 해주나」, 『한국일보』, 2018. 5. 12.
- 차우규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132쪽 관련.
- 신형민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176쪽 관련.
- 권기범, 「작년 청소년 사이버 범죄 처음 1만 명 넘어」, 『동아일보』, 2021. 7. 30.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80쪽 관련.
- 이진석 외(2019),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85쪽 관련.
- [라] : 이용범, 「[이용범의 행복 심리학] 배터리가 방전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2019. 7. 17.
- 구정화 외(2020),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88쪽 관련.
- 신형민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176쪽 관련.
- 구본권, 「피싱 메일 몰라? ……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OECD 바닥 ‘충격」, 『한겨레』, 2021. 5. 16.
-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86쪽 관련.
- 이예림, 「‘외로움부’까지 만든 영국, 고독·고립 인식 개선에 총력 [2023 대한민국孤리포트]」, 『세계일보』, 2023. 5. 15.
- 차우규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132쪽 관련.
- 신형민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176쪽 관련.
- 구정화 외(2020),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88쪽.
- 강정미, 「한국판 잇힐 권리 시행 …… ‘내가 쓴 글’ 입증해야」, 『조선일보』, 2016. 9. 28.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81쪽 관련.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5점)

- [가]의 현상을 요약하고 [나]를 [가]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를 [가]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연관 지어 설명하였는지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에 제시된 SNS 확산이 [나]에 제시된 새로운 인간 관계 형성, 뉴 미디어 등장, 정치 참여 확대의 새로운 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 제시된 SNS 확산이 [다]에 제시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 피상적 인간 관계, 외로움 증가, 가짜 뉴스 확산, 사이버 범죄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과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다]의 부정적 측면이 특별히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젊은 연령대에서 더욱 심각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5점)

- [라]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여 [다]를 해결하는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라]에 제시된 도표들과 정보 윤리에 대한 설명을 활용하여, 개인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시간 개선, 정보 윤리 실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별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라]에 제시된 해외의 외로움부 설치, 잊힐 권리 관련 법안 사례를 활용하여, 정부가 SNS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최근 SNS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SNS 이용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나]는 SNS 사용의 긍정적 측면이다. SNS는 느슨한 연결의 힘을 통해 다양한 인간 관계 형성 및 개인의 사회화에 도움을 주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수단이 된다. 반면 [다]는 SNS 사용의 부정적 측면이다. 지나치게 SNS에 몰입할 경우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고, 비대면 소통 증가로 인한 외로움, 인간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가짜 뉴스, 사이버 범죄도 증가한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은 인터넷,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 시간을 줄여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상 공간에서 필요한 정보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의 외로움부 설치, 잊힐 권리 법안 사례 등과 같이 SNS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